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 타당화 연구¹⁾

조 성 호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방어기체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인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K-DSQ)를 제작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46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존감, 특성 및 상태불안, 신경증적 및 정신병적 증상, 스트레스 대처방식 등을 측정하는 검사들과 더불어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를 실시하여 이들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방어기체들은 네 가지 방어유형(미성숙, 적응적, 자기억제적, 및 갈등회피적 방어유형)으로 나뉘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용하는 방어유형 면에서 피험자들이 서로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험자들은 건강한 심리적 특성을 지니는 집단(적응 집단), 부적응적 심리적 특성을 지니는 집단(부적응 집단), 그리고 적응 집단과 부적응 집단의 중간에 위치하는 집단(경계선 집단)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에 속한 피험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거나 더 적게 사용하는 방어유형의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나며, 그에 따라 심리적 특성 및 적응 수준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를 통해 방어기체와 방어유형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개인들을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과 적응 수준을 지닌 몇 개의 상이한 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안사항들을 제시하였다.

1) 이 논문은 1998년도 가톨릭대학교 정착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Freud(1894)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래로 방어(defense) 개념은 심리적 증상의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정신내적 과정으로서 큰 주목을 받아왔다. Freud는 1905년에 몇 가지 방어기제들을 소개한 후 방어 개념을 억압으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등 방어 개념 자체에 대해 한 동안 소극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Freud는 1926년에 이르러 “불안이라는 주제를 처음 연구할 무렵인 30년 전에 모호하게 사용했으나 그 후 버렸었던 개념(즉, 방어)을 다시 부활시켰다”(p. 163)라고 말함으로써 방어를 정신분석 이론의 전면에 다시 등장시켰다.

이러한 Freud의 후기 입장을 이어 받은 A. Freud(1946)는 방어기제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과 설명을 시도하였고, 이후로 Kernberg (1967), Vaillant(1971), Klein(1973) 등 여러 정신분석 이론가들은 여러 가지 방어기제들을 다양한 임상적 사례와 더불어 제시해왔다. 이에 힘입어, 방어기제에 대한 임상적 이해는 한층 더 깊어지게 되었으며, 오늘 날에 이르러 방어기제는 심리적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방어의 임상적 중요성에 비하면 방어에 대한 객관적인 경험적 연구는 그리 활발하거나 체계적이지는 못한 편이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문제, 즉 개념의 명확성 결여와 측정상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Hauser, 1986). Beutel(1988)은 17명의 유명한 정신분석 이론가들의 저술들을 개관하면서 37개의 방어기제 용어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중에서 단지 14개의 방어기제들만이 17명 중 최소 5명 이상의 이론가들에 의해 동일한 명칭으로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개념상의 혼란은 방어기제 연구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A. Freud (1946)조차도 마찬가지여서, 그녀는 10개의 방

어기제를 기술하면서 20개의 명칭을 사용하는 용어상의 혼란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방어기제 연구자들이 개별 방어기제에 대한 명확하고도 상호배타적인 정의를 내리기 시작함으로써 현재는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Vaillant, 1992a).

방어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있어서 보다 심각한 문제는 측정과 관련된 방법론적인 문제이다 (Davidson & MacGregor, 1998). 자아방어기제는 정신내적 갈등이나 외적인 환경적 요구와의 갈등에 직면하여 불안이 일어날 때 자아가 불안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을 일컫는다 (Freud, 1926). 방어는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정신과정이며, 방어기제 또한 그러하다(A. Freud, 1946). 방어와 같은 무의식적 정신과정에 대한 측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이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한 방어에 대한 제대로 된 경험적 연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는 Freud (Breuer & Freud, 1893-1895)가 저항을 처음 언급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이지만, 무의식적 정신과정인 저항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도구가 개발되기 시작한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 전까지는 저항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조성호, 1997).

전통적으로 방어기제에 대한 평가는 주로 임상 면접에 기초한 평정자들의 임상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 방법이 지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상 관찰에 의한 방어기제 평가는 임상 실제에서 관찰된 풍부한 자료에 기초한다는 점과 면담 상황 내에서 평정자와의 상호관계로부터 보여지는 행동에서 피검자의 무의식적인 행동 경향성을 직접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평정자간 신뢰도의 결

여, 임상 면접의 방식 및 관찰 방법에 따른 평정 결과의 가변성, 평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은 이 방법의 제한점으로 작용한다(Gleser & Ihilevich, 1969; Vaillant, 1975). 특히, 평정자들간에 방어기제 평정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Vaillant, 1992b).

임상적 평정에 의한 평가 방식이 지니는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연구자들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방어기제를 평가하려는 시도를 기울여 왔다(예: 김재은, 이근후, 김정규, 박영숙, 1991; Bond, Gardner, Christian, & Sigal, 1983; Gleser & Ihilevich, 1969; Joffe & Naditch, 1977; Plutchik, Kellerman, & Conte, 1979). 방어기제에 대한 자기보고식 평가는 임상적 평정 방식에 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점을 지닌다. 하나는 방어기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하기가 매우 편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피검자의 자기보고를 통해 방어기제를 평가할 수 있는지는 자기보고식 방어기제 평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어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러한 논란의 핵심은 방어를 하는 당사자가 자신이 사용하는 방어를 의식적으로 자각해서 질문지상에 보고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는 것과 관련된다. 자아의 방어과정은 무의식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어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방어를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직접적으로 의식되거나 자각될 수 없다는 지적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Bond 등(1983)은 방어가 행해지는 무의식적 정신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자기보고는 불가능하지만, 무의식적 정신과정의

의식적 파생물들(conscious derivatives), 즉 방어의 외현적 현시물들에 대한 의식적 자각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자기보고 또한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달리 말하자면, 방어기제 자체는 아니지만, 방어기제로 인해 파생된 행동들을 평가함으로써 방어기제에 대한 간접적 측정을 시도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일련의 방어 연구자들은 개별 방어기제들을 몇 가지 군으로 위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예: Glover, 1956; Gill, 1963; Haan, 1963; Vaillant, 1971). 특히, Vaillant(1971)는 개별 방어기제보다는 방어유형(defense style)을 평가하는 것이 임상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어의 위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개별 방어기제들은 미성숙한(또는 병리적인) 방어유형에서부터 성숙한(또는 건강한) 방어유형에 이르기까지 성숙성 위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실제로, Vaillant(1975, 1976)는 방어기제를 자기애적(narcissitic) 유형, 미성숙한(immature) 유형, 신경증적(neurotic) 유형, 성숙한(mature) 유형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방어유형이 개인들의 정신병리와 체계적으로 관련됨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다.

Bond 등(1983)은 방어유형질문지(Defense Style Questionnaire, DSQ)를 개발하였는데, 이 질문지를 사용한 경험적 연구들은 방어에 대한 자기보고식 측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어유형질문지를 통해 성숙성 위계에 따라 서로 구분되는 방어유형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예: Andrews, Pollock, & Stewart, 1989; Bond, Gardner, Christian, & Sigal, 1983; Bond, Perry, Gautier, Goldenberg, Oppenheimer, & Simand, 1989; Vaillant, Bond, & Vaillant, 1986).

Bond와 Wesley(1996)는 DSQ를 사용한 수많은 연구들을 개관하면서 DSQ에 의해 측정되는 방어유형이 여러 가지 정신건강 지표 및 성격적 특질들과 이론적으로 예언된 방식으로 관련된다고 밝혔다. 특히, DSQ는 성공적인 치료에 의한 방어유형의 변화를 잘 예언함으로써 임상적 타당성 역시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 등 적절한 심리측정적 속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Bond 등(1983)이 개발한 방어유형질문지를 우리 나라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방어유형질문지에 기저하는 기본 논리는 방어유형은 여러 개의 개별 방어기제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방어기제는 다시 그 방어기제의 의식적 파생물들을 반영하는 개별 문항들에 의해 자기보고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상황에 맞는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K-DSQ)를 개발하여 과연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개별 방어기제들을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성숙성 위계에 따라 서로 구분이 되는 방어유형들을 도출하여 개인들을 서로 다른 방어유형들을 사용하는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방 법

1. 피험자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수도권 및 지방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465명(남자, 144명; 여자, 321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85세, 범위는 18~29세였다.

2. 도 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K-DSQ)는 Bond, Gardner, Christian, 및 Sigal(1983)이 개발한 Defense Style Questionnaire(DSQ)를 본 연구자가 수정하여 완성한 자기보고식 방어유형 측정도구이다. 방어유형은 여러 개의 개별 방어기제들로 구성되며, 각각의 방어기제는 다시 그 방어기제를 나타내는 개별 문항들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척도의 기본 논리이다. 원래 DSQ는 25개의 방어기제를 측정하는 78개의 문항과 응답의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 정도를 측정하는 10개의 허위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특정 방어기제에 대한 측정문항의 수가 3개 미만인 경우 측정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고려 하에 1~2개의 문항으로 측정되는 방어기제들은 제외시켰다.³⁾ 또한 척도의 길이를 줄이기 위해 방어기제를 직접 측정하지 않는 10개의 허위 문항들 역시 제외시켰다. 그 결과, 원 척도에서 사용된 25개의 방어기제들 중

2) Bond 등(1983)이 최초로 개발한 DSQ에서는 24개의 방어기제를 평가하고 있으나, Bond와 Wesley(1996)가 최근에 제작한 "Manual for the Defense Style Questionnaire"에는 25개의 방어기제를 평가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를 따랐다.

3) 공상(fantasy)과 승화(sublimation)의 방어기제는 원 척도에서 각기 1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2문항씩을 새로 추가하여 각기 3문항이 되도록 하였다.

군집, 예견, 원시적 이상화, 투사적 동일시, 이타주의, 퇴행, 신전화, 자제, 과제지향 등 9개 방어기제를 제외한 16개의 방어기제를 측정하는 66개의 문항들이 타당화를 위해 사용되었다(표 1 참조).

척도의 번안 및 문항 수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우선, 66개 문항에 대해 연구자가 일차로 우리말로 번안한 다음, 영문학을 전공한 대학교수의 검토와 수정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번안된 척도를 정신역동 이론을 주된 치료적 접근으로 사용하는 상담심리전문가 2명에게 제시하여 각 문항이 특정 방어기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적절한지를 검토받았다.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문항들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문항내용을 다시 수정하였다. 이러한 문항 수정은 2명의 상담심리전문가들이 모두 동의할 때까지 반복되었다.

이 질문지에서 응답자들은 각 문항 진술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7점 척도상에서 응답하게 되며⁴⁾, 점수가 높을수록 특정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방어기제를 응답자가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정 방어기제에 대한 점수는 그 방어기제에 소속된 문항 점수들을 평균함으로써 구해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및 문항 내용은 부록에 제시되었다.

2) 자존감 척도

이 척도는 Rosenberg(1965)가 제작한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원호택과 이훈진(1995)이 우리말로 번안한 것이다. 원래 이 척도는 자존감이 특정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 특성들인 자신감, 자기가치감 등을 포함하는 단일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가정하에 제작되었

다(Marsh, 1993). 10개 문항으로 구성되는 이 척도에서 피검자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원호택과 이훈진(1995)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8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이었다.

3) 상태-특성불안 검사

이 검사는 한덕용, 이장호, 및 전경구(1995)가 Spielberger, Gorsuch, Lushene, Vagg, 및 Jacobs (1983)에 의해 개발된 상태-특성불안 검사 Y형(STAI-Y)을 한국 상황에 맞게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한 것으로,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과 특성불안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 4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 또는 특성불안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한덕용 등(1995)은 상태 및 특성불안의 15일 간격 검사-재검사 신뢰도(r)를 각각 .38과 .76, 내적 합치도(Cronbach α)를 각각 .92와 .90으로 보고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각각 .92와 .89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한국판 아이겐크 성격검사(성인용)

이 검사는 Eysenck Personality Scale (Eysenck & Eysenck, 1991)을 이현수(1997)가 한국적 상황에 맞게 표준화한 것이다. 이 검사는 여러 가지 하위척도들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정신병적 경향성(psychoticism)을 측정하는 하위척도(17문항)와 신경증적 경향성(neuroticism)을 측정하는 하위척도(26문항)를 사용하였다. 각 척도에서 피검자들은 제시된 진술문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게 되며,

4) 원 척도에서는 9점 척도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7점 척도화 하였다.

표 1. 방어기제별 문항-방어기제 점수 상관

방어 기제	방어기제 점수(SD)	문항 번호	문항점수 (SD)	문항-방어 상관(r)	방어기제	방어기제 점수(SD)	문항 번호	문항점수 (SD)	문항-방어 상관(r)		
행동화	3.63(1.02)	4	4.15(1.49)	.73 ^u	투사	3.05(0.70)	2	3.12(1.31)	.63		
		14	4.41(1.34)	.69			8	2.71(1.38)	.67		
		20	3.19(1.47)	.71			18	5.04(1.38)	.42		
		25	3.13(1.48)	.70			28	3.39(1.48)	.44		
		36	3.26(1.59)	.63			44	1.92(1.13)	.65		
소비	3.42(1.10)	56	4.23(1.63)	.56			46	1.95(1.07)	.61		
		61	2.78(1.53)	.63			51	2.51(1.29)	.65		
		64	3.25(1.88)	.74			55	3.04(1.19)	.56		
부정	3.37(0.98)	10	3.62(1.58)	.65			65	3.78(1.28)	.35		
		33	2.91(1.72)	.62			분리	3.44(0.90)	34	5.39(1.32)	.52
		41	3.58(1.60)	.54					42	2.50(1.41)	.73
공상	4.08(1.13)	19	4.01(1.69)	.66			49	2.42(1.38)	.71		
		23	3.25(1.65)	.69			승화	3.94(1.12)	3	3.63(1.75)	.75
		31	4.98(1.54)	.75					13	3.75(1.73)	.77
체념	3.06(1.09)	52	2.47(1.38)	.64			38	4.45(1.33)	.55		
		57	3.20(1.45)	.78			취소	4.13(0.91)	54	4.76(1.30)	.61
		62	3.51(1.53)	.82					60	3.01(1.59)	.69
억제	4.21(0.96)	6	4.41(1.56)	.71			66	4.62(1.36)	.61		
		11	3.90(1.65)	.53			철수	4.53(1.36)	24	4.34(1.75)	.88
		21	4.77(1.34)	.55					27	4.77(1.43)	.81
		32	4.43(1.74)	.70			전능	3.41(3.41)	39	4.47(1.61)	.85
		40	3.56(1.65)	.52					7	3.66(1.35)	.72
반동 형성	3.60(1.10)	9	2.89(1.59)	.49			12	4.42(1.38)	.72		
		37	3.94(1.58)	.73			16	2.60(1.30)	.73		
		45	3.97(1.66)	.74			17	2.91(1.40)	.75		
		48	3.55(1.60)	.79			22	3.40(1.34)	.70		
		50	3.64(1.58)	.68			29	3.49(1.29)	.75		
수동 공격	3.70(0.99)	1	3.97(1.64)	.69	유머	4.06(1.27)	5	4.10(1.54)	.88		
		15	3.84(1.61)	.55			26	3.94(1.54)	.83		
		30	3.82(1.68)	.52			47	4.15(1.44)	.80		
		35	3.88(1.64)	.67			격리	3.44(1.13)	53	4.28(1.64)	.58
		43	2.98(1.56)	.63					58	2.85(1.60)	.67
						59	2.97(1.74)	.75			

1) 모든 상관은 .001 수준에서 유의미.

각 문항에 대한 피검자의 정반응 개수를 전부 더한 것이 해당 하위척도의 총점이 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 특질이 더 많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현수(1997)는 정신병적 경향성 척도와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r)를 각기 .75와 .88, 내적 합치도(Cronbach α)를 각기 .67과 .84로 보고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각기 .64와 .84인 것으로 나타났다.

5) 대처방식 척도

이 척도는 Folkman과 Lazarus(1985)가 개발한 68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를 김정희(1987)가 요인분석과 일부 문항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완성한 62문항 짜리 척도이다. 이 척도를 대학생에게 실시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제집중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및 사회적 지지의 추구 등 4개 요인이 구해졌으며, 각 요인의 내적 합치도(Cronbach α)는 .87~.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희, 1987). 본 연구에서는 4개 요인 중에서 문제집중적 대처와 정서완화적 대처를 사용하였으며, 46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내적 합치도를 구한 결과, 문제집중적 대처 .89, 정서완화적 대처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절 차

서울·수도권 및 지방 소재 5개 대학 재학생 465명에게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 자존감 척도, 상태-특성불안 검사,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중 정신병적 경향성 및 신경증적 경향성 하위척도, 그리고 대처방식 척도 중 문제집중적 대처와 정서완화적 대처척도를 책자로 묶어 집단으로 실

시하였다.

4. 분석방법

먼저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에 포함된 방어기제들에 대해 각 방어기제들에 소속된 문항 점수들을 평균하여 방어기제별 점수를 계산하고, 개별 문항과 그 문항이 속한 방어기제 점수간의 상관관을 구하였다. 또한 방어기제들간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방어기제 점수들간의 상관관을 구하였다.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어기제 점수들에 기초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요인별로 신뢰도 계수를 계산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얻어진 요인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존감 척도, 상태 및 특성불안 검사, 정신병적 및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 그리고 대처방식 척도의 하위척도들과 상관관을 구하였다. 또한 요인점수를 기초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피험자들이 방어유형 면에서 어떤 집단으로 나뉘어 지는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진 집단들이 각기 어떤 심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결 과

1. 문항-방어기제 점수 상관

먼저 16개의 방어기제들 각각에 대해 방어기제 점수를 구하였다. 방어기제 점수는 동일한 방어기제를 측정하는 문항 점수들을 평균함으로써 계산되었다. 또한 16개 방어기제들 각각에 대해 방어기제 점수와 각 방어기제에 소속된 개별 문항들간의 문항-총점 상관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결과를 보면, 방어기제 점수들의 평균은 3.69였으며, 범위는 3.05~4.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방어기제 점수 상관은 투사와 .35의 상관을 보인 65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4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r = .69$, 범위: $r = .42 \sim .88$). 이는 65번 문항을 제외하고는 각 방어기제에 소속된 문항들이 해당 방어기제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문항-방어기제 점수 상관이 .40보다 낮게 나온 65번 문항은 이후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 방어기제들간의 관계

방어기제들간에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6개의 방어기제 점수들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었다.

3.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의 요인분석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46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어기제 점수들에 기초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방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한 결과, 고유치(eigenvalue) 1.0을 넘는 요인의 수는 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요인들에 대해 scree 검사를 실시한 결과, 네 번째로 추출된 요인과 다섯 번째로 추출된 요인 사이에는 고유치의 큰 변화가 있는 반면, 다섯 번째 요인 이후로는 고유치가 평준화되어 4개의 요인을 추출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이 4개의 요인은 전체 변량의 35.3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출된 4개의 요인들을 varimax 방식으로 직교회전 시킨 결과 구해진 방어기제별 요인 부하량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특정 방어기제가 어느 요인에 소속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

표 2. K-DSQ 방어기제들간의 상관

	행동화	소비	부정	공상	체념	유머	억제	격리	전능	수동 공격	투사	반동 형성	분리	승화	취소	철회
행동화																
소비	.323															
부정	-.002	.031														
공상	.407	.165	.035													
체념	.168	.113	.025	.169												
유머	.156	.112	.187	.021	-.162											
억제	.101	.100	.104	.323	.287	-.289										
격리	.099	.121	.244	.082	.218	.017	.176									
전능	.035	.043	.199	.013	.017	.402	-.227	.065								
수동공격	.375	.257	-.007	.252	.227	-.104	.254	.169	.033							
투사	.406	.280	.019	.317	.460	-.091	.353	.230	-.062	.354						
반동형성	.007	.019	.239	.163	.126	.086	.307	.177	.045	.058	.160					
분리	.354	.259	.028	.226	.244	.001	.215	.053	-.022	.244	.416	.060				
승화	-.028	.065	.130	.058	-.094	.320	-.114	-.031	.175	-.076	-.087	.137	-.037			
취소	.199	.215	.030	.206	.116	.106	.230	.075	.002	.204	.165	.225	.132	.090		
철회	.175	.102	.059	.228	.313	-.235	.401	.042	-.162	.206	.237	.116	.229	.039	.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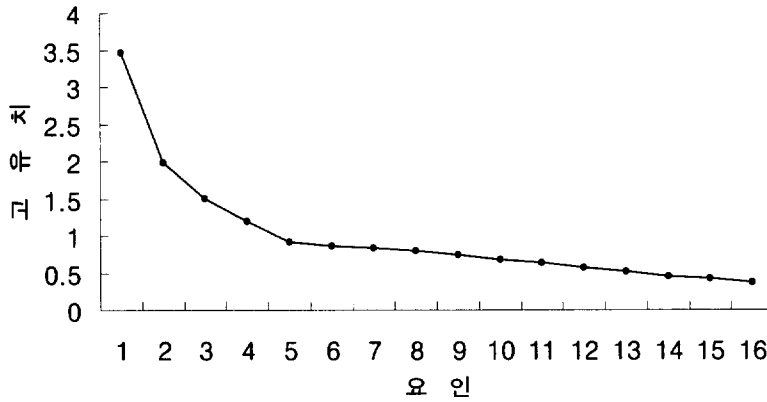


그림 1. K-DSQ 요인별 고유치에 대한 Scree 검사 결과

표 3. K-DSQ의 방어기제별 요인부하량

방어기제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행동화	.771	.078	.002	-.020
투사	.562	-.142	.123	.476
분리	.484	-.058	.083	.190
공상	.477	.011	.324	.015
수동공격	.475	-.118	.122	.169
소비	.433	.097	.045	.076
유머	.119	.775	-.096	-.101
전능	.015	.512	-.145	.127
승화	-.028	.408	.136	-.098
부정	-.070	.328	.225	.235
억제	.185	-.305	.638	.256
반동형성	-.012	.208	.483	.237
철수	.247	-.246	.409	.112
취소	.273	.115	.363	-.008
체념	.269	-.172	.117	.518
격리	.092	.096	.124	.402
설명변량 (%)	12.847	8.992	7.575	5.956

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우선, 특정 요인에 대해 .30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가진 방어기제를 그 요인에 소속되는 방어기제로 간주하였다. 특정 방어기제가 두 개 이상의 요인에 .30 이상의 요인 부하량을 동시에 가질 경우에는 보다 높은 요인 부하량을 가지는 요인에 소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체 변량 중 12.85%를 설명하는 요인 1은 행동화, 투사, 분리, 공상, 수동-공격, 소비 등 6개의 방어기제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충동이나 욕구의 부적절한 처리와 관련되는 것들이다. 즉, 충동이나 욕구를 충동적으로 표출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공상을 통해 충동을 해결하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하거나 알콜 등을 섭취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충동이나 욕구의 처리 방식은 심리적 성숙과는 거리가 멀며, 따라서 이 요인에 대해서는 '미성숙한 방어유형'이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요인 2는 8.99%의 변량을 설명하고, 유머, 전능, 승화, 부정의 방어기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유머와 승화는 성숙한 방어를 가장 잘 대표하는 방어기제들로서 내적인 충동이나 욕구를 적응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다. 전능과 부정이 유머 및 승화와 함께 묶인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전능의 방어기제는 자아의 확대를 지향한다. 이 같은 자아의 확대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에는 자아의 병리를 반영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현실적 기반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부정의 방어기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부정의 내·외적 현실에 대한 전면적인 수용 거부일 경우에는 병리적인 자기기만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원만한 현실 적응을 위하여 내적 욕구나 충동을 자기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시키는 것이라면 상당한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따라서 요인 2는 '적응적 방어유형'으로 명명될 수 있다.

요인 3은 억제, 반동형성, 철수, 취소의 방어기제로 구성되며, 7.58%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제는 충동이나 욕구를 직접적으로 방출하기보다는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고, 반동형성은 내적 충동이나 욕구를 반대되는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진정한 욕구나 충동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과 관련된다. 취소는 내적으로 경험되는 충동이나 욕구를 '취소'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며, 철수는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사람들로 부터 일정한 거리를 둬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요인 3은 내적인 심리적 갈등이나 충동을 솔직하게 표출하기보다는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노력과 관련되며, 따라서 '자기억제적 방어유형'으로 불릴 수 있다.

요인 4는 체념과 격리의 방어기제로 구성되며, 6.00%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

념은 주위의 그 누구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도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관계에 대한 욕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러한 포기는 관계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고자 하는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격리는 심리적 갈등이나 부정적 감정의 의식적 차단을 의미하는데, 격리의 방어기제를 사용하는 개인들에게 있어서 감정이나 충동은 위험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을 의식적 경험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편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체념과 격리는 모두 부정적 감정이나 좌절 또는 갈등을 경험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는 공통점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의 자기보호는 적응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요인 4는 '갈등회피적 방어유형'으로 불릴 수 있다.

표 4에 제시된 각 요인간 상관행렬을 보면, 요인 1과 3, 및 4간에는 .32~.39의 상관이 있으나, 요인 2와 나머지 요인들간에는 상관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요인 1, 3, 4는 서로 어느 정도의 관련이 있는 반면, 요인 2는 나머지 세 개의 요인들과 비교적 무관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의 요인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4개 요인 각

표 4. K-DSQ 요인간 상관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1				
요인 2	.024			
요인 3	.389*	-.028		
요인 4	.332*	.007	.317*	

* p < .001.

각에 대해 문항점수를 기초로 내적 합치도 (Cronbach α)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요인 1에서 요인4까지 각기 .82, .76, .75, 및 .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 2, 및 3의 경우는 내적 합치도 계수의 크기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요인 4의 경우는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요인 4에 속하는 방어기제가 체념과 격리 두 가지 뿐이었고, 따라서 이 두 방어기제에 소속된 문항 수가 적었기(7문항)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4.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의 각 요인과 다른 척도와의 관계

요인분석에서 나타난 4개 요인이 각기 어떤 특성을 지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4개 요인 점수와 자존감 척도, 상태 및 특성불안 검사, 정신병적 및 신경증적 경향성 척도, 그리고 대처방식 척도 중 문제집중적 대처와 정서완화적 대처 측정치들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었다.

요인 1은 자존감과는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34)을, 상태불안, 특성불안, 그리고 정서완화

적 대처와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28~.40)을, 그리고 신경증적 경향성과는 강한 정적 상관(.60)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신병적 경향성, 문제집중적 대처와는 절대값 기준으로 모두 .20 이하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2의 경우에는 상태불안, 특성불안, 신경증적 경향성과는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27~- .41)을 가지는 반면, 자존감, 문제집중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와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25~.44)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나머지 척도들과는 절대값 기준으로 모두 .20 이하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은 자존감과는 -.34의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을 가지는 반면, 상태불안, 특성불안, 신경증적 경향성, 정서완화적 대처와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25~.41)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병적 경향성과 문제집중적 대처와는 모두 절대값 기준으로 모두 .20 이하의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요인 4의 경우에는 자존감과 중간 정도의 부적 상관(-.21)을 가지는 반면, 상태불안, 특성불안, 신경증적 경향성과는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26~.27)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K-DSQ 요인과 다른 척도와의 상관

척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자존감	-.341 ^{***}	.439 ^{***}	-.340 ^{***}	-.207 ^{***}
상태불안	.280 ^{***}	-.267 ^{***}	.254 ^{***}	.270 ^{***}
특성불안	.389 ^{***}	-.410 ^{***}	.407 ^{***}	.262 ^{***}
신경증적 경향성	.600 ^{***}	-.272 ^{***}	.409 ^{***}	.257 ^{***}
정신병적 경향성	.185 ^{***}	-.089	-.052	.155 ^{**}
문제집중적 대처	-.106 [*]	.414 ^{***}	.004	-.100 [*]
정서완화적 대처	.403 ^{***}	.253 ^{***}	.309 ^{***}	.145 ^{**}

* p < .05. ** p < .01. *** p < .001.

5.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의 군집분석

본 연구에 참여한 465명의 대학생 피험자들이 방어유형 면에서 어떤 집단으로 나뉘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4개의 요인 점수를 기초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결합 방법으로는 Ward 방식을 사용하였다. 군집의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 군집 수를 2개 이상으로 지정해준 다음 생성된 군집들을 검토한 결과, 군집 수를 3개로 할 경우가 방어유형 면에서 피험자들을 분류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에는 군집분석 결과 나타난 3개 군집 각각에 대해 사례 수와 요인별 점수가 제시되어 있다. 요인별 점수는 두 가지 형태로 제시되었다. 하나는 요인별 총점인데, 이는 각 군집에 포함된 피험자들이 각 요인에서 받은 총점을 나타낸다. 각 요인마다 소속된 문항 수에 차이가 나고 따라서 피험자들이 각 요인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의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점수를 기초로 각 요인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 결과를 군집별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두 번째로 제시된 요인별 문항 평균은 요인별 총점을 각 요인에 소속된 문항 수로 나눈 값으로

서 1~7의 점수 범위를 갖는다. 이 값은 피험자들이 각 요인에 소속된 문항들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림 2에는 요인별 문항 평균값을 기초로 3개 군집 각각에 소속된 피험자들이 어떤 요인을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지가 그림으로 제시되어 있다.

115개의 사례로 구성된 군집 1의 경우, 다른 군집들에 비해 요인 2에 소속된 방어기제는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사용한 반면, 요인 1, 3, 4에 소속된 방어기제는 중간 정도로 사용한다는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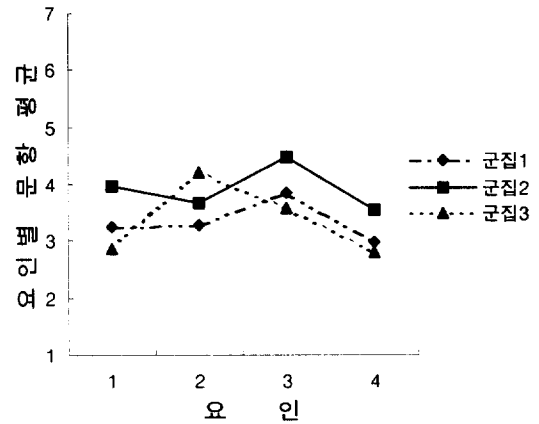


그림 2. 요인별 문항평균의 군집별 비교

표 6. 군집별 사례 수와 요인별 점수

군집	사례수	요인별 총점				요인별 문항 평균 ¹⁾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1	115	19.57	13.12	15.36	5.98	3.26	3.28	3.84	2.99
2	244	23.79	14.69	17.91	7.12	3.96	3.67	4.48	3.56
3	106	17.10	16.84	14.37	5.63	2.85	4.21	3.59	2.81

1) 요인별 문항 평균은 요인별 총점을 각 요인에 소속된 문항수로 나눈 값임.

을 지낸다. 반면에, 244개의 사례로 구성된 군집 2는 요인 2는 중간 정도로 사용하지만, 요인 1, 3, 4는 가장 많이 사용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06개의 사례로 이루어진 군집 3의 경우는 요인 2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나머지 요인들은 가장 적게 사용한다는 특징을 지낸다.

그림 2로부터 세 개의 군집은 요인 1, 3, 4에서 공통적인 순서 위계를 지님을 알 수 있다. 즉, 이 세 개의 요인들에서 군집 2는 군집 1에 비해, 군집 1은 군집 3에 비해 요인별 점수가 일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인 2에서는 군집 3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군집 2와 1이 이어져, 요인 1, 3, 4와는 다른 순서 위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세 개의 군집을 서로 구분함에 있어서, 요인 1, 3, 4는 서로 공통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요인 2는 이 세 개의 요인들과는 독립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세 개의 군집들 각각에 소속된 피험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각 군집의 피험자들이 자존감, 상태 및 특성불안, 정신병적 및 신경증적 경향성, 그리고 대처방식 등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일원변량분석 하였다. 각 척도별 세 군집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가 표 7과 8에 제시되었다.

변량분석 결과, 세 군집의 7개 척도 상의 점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를 보면, 군집 3은 자존감과 문제집중적 대처에서 다른 두 군집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상태 및 특성불안, 정신병적 및 신경증적 경향성, 그리고 정서완화적 대처에서는 더 낮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군집 2는 자존감과 문제집중적 대처에서 다른 두 군집보다 더 낮은 점수를 보였고, 나머지 척도들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1은 정신병적 경향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척도에서 군집 2와 군집 3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Bond 등(1983)이 개발한 방어유형질문지(DSQ)를 우리 나라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K-DSQ)를 제작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K-DSQ를 통해 성숙성 위계에 따라 서로 구분이 되는 방어유형들을 도출하여 개인들을 서로 다른 방어유형을 사용하는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경험적으로 확

표 7. 군집별 각 척도의 평균(표준편차)

집 단	자존감	상태불안	특성불안	정신병	신경증	문제집중	정서완화
군집 1	36.23 (5.61)	42.68 (8.73)	45.37 (7.51)	2.30 (2.46)	9.75 (3.92)	32.29 (8.71)	28.14 (8.19)
군집 2	33.14 (6.14)	46.32 (9.50)	50.01 (8.33)	2.85 (2.47)	13.71 (4.57)	31.96 (9.71)	32.97 (8.32)
군집 3	39.58 (4.69)	38.58 (9.64)	39.69 (7.53)	2.03 (1.84)	6.26 (4.19)	35.80 (8.93)	27.97 (8.38)

표 8. 각 척도에 대한 세 군집의 일원변량분석 및 사후검증 결과

척도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값	사후검증 ^{1),2)}
자존감	군집간	3164.72	2	1582.36	48.50**	군집3 > 1 > 2
	군집내	15040.51	462	32.62		
	전체	18205.24	464			
상태불안	군집간	4582.53	2	2291.26	26.18**	군집2 > 1 > 3
	군집내	40422.41	462	87.49		
	전체	45004.94	464			
특성불안	군집간	8054.36	2	4027.18	63.52**	군집2 > 1 > 3
	군집내	29227.63	462	63.40		
	전체	37281.99	464			
정신병적 경향성	군집간	57.70	2	28.85	5.25*	군집2 > 3
	군집내	2531.93	462	5.49		
	전체	2589.63	464			
신경증적 경향성	군집간	4353.24	2	2176.62	115.85**	군집2 > 1 > 3
	군집내	8680.20	462	18.78		
	전체	13033.44	464			
문제집중적 대처	군집간	1145.83	2	572.91	6.86*	군집3 > 1, 2
	군집내	38494.52	462	83.50		
	전체	39640.36	464			
정서완화적 대처	군집간	2799.76	2	1399.88	20.30**	군집2 > 1, 3
	군집내	31857.25	462	68.95		
	전체	34657.02	464			

1) 각 군집별로 피험자수가 동일하지 않아 Dunnett T3 방법을 사용하였음.

2) 사후검증에서 '>' 표시는 이웃하는 군집간의 차이가 .05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냄.

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25개의 방어기제를 측정하는 88문항으로 구성된 방어유형질문지는 16개의 방어기제를 측정하는 66문항짜리 질문지로 축소되었다. 이는 개별 방어기제에 대한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개미만의 측정 문항을 갖는 방어기제들을 제외하고, 방어기제를 직접 측정하지 않는 10개

의 허위 문항들을 제외한 데 따른 것이다. 각 방어기제별로 문항-방어기제간 상관을 구한 결과, 평균 상관이 .69에 이르고, 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문항-방어기제간의 상관이 모두 .40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DSQ 문항들이 방어기제들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문항-방어기제간 상관이 .40에 이르지 못한 65번 문항은 이후의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16개 방어기제 점수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미성숙한 방어유형)은 행동화, 투사, 분리, 공상, 수동-공격, 소비의 6개 방어기제로 구성되었으며, 요인 2(적응적 방어유형)는 유머, 전능, 승화, 부정의 4개 방어기제들로 이루어졌다. 요인 3(자기억제적 방어유형)은 억제, 반동형성, 철회, 취소의 4개 방어기제, 그리고 요인 4(갈등회피적 방어유형)는 체념과 격리의 2개 방어기제들로 구성되었다. 각 요인별로 내적 합치도를 구한 결과, 4개 요인은 각기 대체적으로 만족할만한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요인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요인 1, 3, 및 4는 서로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요인 2는 나머지 요인들과 독립적인 성질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각 요인과 심리적 특성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요인 2는 자존감, 문제집중적 대처, 정서완화적 대처와는 정적인 상관관을 보이고, 상태불안, 특성불안, 신경증적 경향성, 정신병적 경향성과는 부적 상관관을 보인 반면, 요인 1, 3, 및 4는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측정치들에서 요인 2와는 상반되는 상관 패턴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요인 3과 4보다는 요인 1이 여러 측정치들과의 상관의 크기가 전반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건강 측면에서 더 부적응적인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로부터 네 요인들을 크게 두 가지 방어유형군, 즉 적응적 방어유형(요인 2) 대 미성숙·자기억제·갈등회피적 방어유형군(요인 1, 3, 4)으로 대별하는 것이 가능하며, 후자의 세 방어유형은 함께 부적응적 방어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들을 방어유형 면에서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4개의 요인 점수(즉, 방어유형 점

수)를 기초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험자들은 서로 뚜렷이 구분되는 세 개의 군집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1은 적응적 유형의 방어는 적게 사용한 반면, 부적응적 방어유형군(미성숙, 자기억제, 및 갈등회피적 방어유형)은 중간 정도로 사용한다는 특징을 지니며, 군집 2의 경우는 적응적 유형의 방어는 중간 정도로 사용하지 않지만, 부적응적 방어유형군은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군집 3은 적응적 유형의 방어는 많이 사용한 반면, 부적응적 방어유형군은 적게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부터 각 군집은 사용하는 방어유형 면에서 체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방어유형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심리적 특성 또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적응적 유형의 방어는 적게 사용하고 적응적 유형의 방어는 많이 사용한 군집 3은 자존감이 높고, 문제중심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며, 불안 수준이 낮아 신경증 및 정신병적인 증상을 경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적응적 방어유형은 중간 정도이지만, 부적응적 유형의 방어를 많이 사용한 군집 2는 자존감이 낮고, 정서완화적 대처를 많이 사용하며, 불안 수준이 높아 신경증적 및 정신병적 증상들을 경험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적응적 유형의 방어는 적게 사용하지만, 부적응적 유형의 방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크게 높지 않았던 군집 1의 경우에는 모든 심리적 특성들에서 군집 3과 군집 2의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군집 3은 적응 집단, 군집 2는 부적응 집단, 군집 1은 경계선 집단으로 부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K-DSQ에 소속된 문항들

은 방어기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서 적절한 신뢰도를 지닌다. 둘째, K-DSQ에 소속된 방어기제들은 미성숙, 적응적, 자기억제적, 및 갈등회피적 유형의 네 가지 방어유형으로 나뉘어진다. 또한 방어유형에 따라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 불안, 및 심리적 증상을 경험하는 정도 역시 차이가 난다. 셋째, 특정 방어유형을 더 많이 혹은 더 적게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개인들을 서로 다른 심리적 특성과 적응적 기능성을 지니는 상이한 집단들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방어기제 및 유형을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어유형 질문지를 우리 나라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타당화시키는데 성공적인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방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신뢰로운 측정도구의 결여로 인해 많은 제한을 받아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Hauser, 1986), 본 연구에서 타당화된 K-DSQ는 국내에서 방어와 관련된 연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65문항으로 구성된 K-DSQ는 실시하기가 매우 간편해 실제적 유용성이 크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방어유형이 성숙성 수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는 외국의 연구 결과들(Andrews et al., 1989; Bond et al., 1983, 1989; Vaillant, 1975, 1976; Vaillant et al., 1986)을 우리 나라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개별 방어기제 보다는 방어유형이 임상적으로 더 큰 활용가치가 있다는 주장(Vaillant, 1971)에 근거해 볼 때, K-DSQ는 상담과 심리치료에서 높은 활용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담자의 방어유형에 따라 치료적 전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어떤 상담자의 개입 전략이 내담자의 방어유형 변화에 기여하는지, 방어

유형의 변화와 치료적 성과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안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대학생 피험자들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를 심리적 문제를 가진 내담자 집단이나 신경증 및 정신과 환자 집단으로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심리적 장애의 정도 및 유형별로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반복검증 또는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K-DSQ가 방어를 측정하는 다른 검사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공존 타당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지닌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K-DSQ를 다른 방어기제검사(예: 이화방어기제검사; 김재은 등, 1991)와 동시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K-DSQ에 대한 타당화를 지속적으로 확장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은, 이근후, 김정규, 박영숙(1991). 이화방어기제 실시요강. 서울: 하나의학사.
- 김정희(1987).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호택, 이훈진(1995). 편집증적 경향성,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집(pp. 277-290).
- 이현수(1997). 한국판 아이젠크 성격검사 실시

- 요강. 서울: 학지사.
- 조성호(1997). 내담자 저항과 내담자 반발성, 상담자 개입특성 및 작업동맹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 1, 101-127.
- 한덕웅, 이장호, 전경구(1995). Spielberger의 상태-특성불안 검사 Y형의 개발.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집(pp. 73-84).
- Andrews, G., Pollock, C., & Stewart, G. (1989). The determination of defense style by questionnair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 455-460.
- Beutel, M. (1988). *Bewältigungsprozesse bei chronischen Erkrankungen*. Munich: VCH.
- Bond, M., Gardner, S. T., Christian, J., & Sigal, J. J. (1983). Empirical study of self-rated defense style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0, 333-338.
- Bond, M., & Wesley, S. (1996). Manual for the Defense Style Questionnaire. Unpublished manuscript, McGill University, Montreal, Canada.
- Bond, M., Perry, J. C., Gautier, M., Goldenberg, M., Oppenheimer, J., & Simand, J. (1989). Validating the self-report of defense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3, 2, 101-112.
- Breuer, J., & Freud, S. (1893-1895). Studies on hysteria. In J. Strachey(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Vol. 2). London: Hogarth Press.
- Davidson, K., & MacGregor, M. W. (1998). A critical appraisal of self-report defense mechanisms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66, 6, 965-992.
- Eysenck, H. J., & Eysenck, S. B. G. (1991). *Manual for the Eysenck Personality Scales*. London: Hodder & Stoughton.
- Folkman, S., & Lazarus, R. S. (1985). If it changes it must be a process: Study of emotion and coping during three stages of a college examin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150-170.
- Freud, A. (1946).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s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Freud, S. (1894). The neuro-psychoses of defense. In J. Strachey(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Vol. 3). London: Hogarth Press.
- Freud, S. (1905). Jokes and their relation to the unconscious. In J. Strachey(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8). London: Hogarth Press.
- Freud, S. (1926). Inhibitions, symptoms and anxiety. In J. Strachey(Ed. and Trans.),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 Sigmund Freud*(Vol. 20). London: Hogarth Press.
- Gill, M. M. (1963). Topography and systems in psychoanalytic theory. *Psychological Issues, Monograph 10*.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Gleser, G. C., & Ihilevich, D. (1969). An objective instrument for measuring defense mechanism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51-60.
- Glover, E. (1956). *On the early development of mind*.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aan, N. (1963). Proposed model of ego functioning: Coping and defense mechanisms in relation to IQ change. *Psychological Monograph 77*, 1-23.
- Hauser, S. T. (1986). Conceptual and empirical dilemmas in the assessment of defenses. In G. E. Vaillant(Ed.), *Empirical studies of ego mechanisms of defense*(pp. 90-99).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Inc.
- Joffe, P., & Naditch, M. (1977). Paper and pencil measures of coping and defending processes. In N. Haan(Ed.), *Coping and defending: Processes of self-environment organization*(pp. 280-297). New York: Academic Press.
- Kernberg, O. F. (1967). Borderline personality organization.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15*, 641-685.
- Klein, M. (1973).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London: Hogarth Press.
- Marsh, H. W. (1993). Self-esteem stability and responses to the stability of self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7*, 253-269.
- Plutchik, R., Kellerman, H., & Conte, H. R. (1979). A structural theory of ego defense and emotions. In C. E. Izard(Ed.), *Emotions in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pp. 229-257). New York: Plenum Press.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chi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Lushene, R. E., Vagg, P. R., & Jacobs, G. A. (1983).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Inc.
- Vaillant, G. E. (1971). Theoretical hierarchy of adaptive ego mechanis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4*, 107-118.
- Vaillant, G. E. (1975).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III: Empirical dimensions of mental health.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2*, 420-426.
- Vaillant, G. E. (1976). Natural history of male psychological health, V: The relation of choice of ego mechanisms of defense to adult adjustment.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3*, 535-545.

- Vaillant, G. E. (1992a). The need for a uniform nomenclature for defenses. In G. E. Vaillant(Ed.), *Ego mechanisms of defense: A guide for clinicians and researchers*(pp. 43-57). New York: American Psychiatric Press.
- Vaillant, G. E. (1992b). The struggle for empirical assessment of defenses. In G. E. Vaillant(Ed.), *Ego mechanisms of defense: A guide for clinicians and researchers*(pp. 89-103). New York: American Psychiatric Press.
- Vaillant, G. E., Bond, M., & Vaillant, C. O. (1986). An empirically validated hierarchy of defense mechanism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3*, 786-794.

A Validational Study of Korean Version of Defense Style Questionnaire

Seong-Ho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study was attempted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Defense Style Questionnaire(K-DSQ). 465 college students completed the K-DSQ and measures of self-esteem, state and trait anxiety, psychoticism, neuroticism, and stress-coping strategies. Four factors were extracted from the factor analysis of the sixteen K-DSQ defense mechanisms, and each factor was termed as immature, adaptive, self-inhibiting, and conflict-avoiding defense style. The cluster analysis of subjects produced three clusters(adaptive, maladaptive, and borderline), and each style of defenses contributed specifically to each type of clusters to determine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adaptation of individuals within each cluste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K-DSQ had good psychometric properties as a measure of mechanisms and styles of defense, and that it could differentiate individual'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adaptive functioning.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on defense mechanisms.

〈부록〉 한국판 방어유형질문지(K-DSQ)

다음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행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각 문항의 내용이 당신의 생각이나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각 문항마다 적당한 숫자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상당히 일치하지 않는다	조금 일치하지 않는다	중간이다	조금 일치한다	상당히 일치한다	매우 일치한다

1. 나는 화가 나면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은근히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2. 사람들은 늘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것 같다.
3. 나는 마음이 불안할 때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일(예: 책읽기, 공부하기, 그림 그리기 등)을 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곤 한다.
4. 나도 모르게 행동이 먼저 나와 뒷수습을 하는 데 골머리를 썩히는 때가 종종 있다.
5. 나는 심란한 일로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곧잘 유머를 발휘해서 기분을 전환시키곤 한다.
6. 사람들에게 내 권리를 주장하기가 웬지 매우 조심스럽다.
7. 나는 내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다.
8. 사람들은 나를 못 살게 구는 경향이 있다.
9. 내 돈을 뺏어간 강도가 벌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0. 나는 불쾌한 일을 겪어도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다.
11. 최선을 다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기가 웬지 주저스럽다.
12. 내가 가진 능력은 누구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13. 나는 순간순간 겪게 되는 힘든 일들을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면서 해소하곤 한다.
14. 어쩔 수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해 버릴 때가 종종 있다.
15. 누가 나에게 억지로 무슨 일을 시킨다면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 척 해도 실은 건성으로 해버린다.
16. 나는 슈퍼맨처럼 막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 닥쳐도 전혀 두렵지 않다.
17. 나는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18.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에 신경을 몹시 쓰는 편이다.
19.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깔아뭉개는 상상을 종종 한다.
20. 기분이 안 좋으면 전후사정 안 가리고 내키는 대로 해버려야 직성이 풀린다.
21. 나는 여러모로 억제를 많이 하는 편이다.
22.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하더라도 전혀 기죽지 않는다.
23. 나는 공상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24. 마음이 괴로울 때면 사람들을 멀리한다.

25. 나도 모르게 너무 무리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로 부터 제지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26. 체치 넘치는 유머로 심각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27. 화가 나면 사람들 대하기가 싫어진다.
28. 기대 이상으로 나를 친근하게 대하는 사람들은 미리 경계해야 뒤탈이 없다.
29. 나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30. 만나기 싫은 사람과의 약속에는 웬지 모르게 종종 늦게 된다.
31. 현실에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공상 속에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2. 속으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웬지 모르게 매우 어렵다.
33. 인적이 뜬 밤길에 낯선 사람이 뒤따라 온다해도 전혀 겁나지 않는다.
34. 어떤 때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 또 어떤 때에는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35. 나는 화가 나면 드러내 놓고 화를 내기보다는 비꼬거나 빈정거리는 경향이 있다.
36. 상대방으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차근차근 따지기보다는 일단 화부터 내고 본다.
37. 누가 나를 귀찮게 해도 싫은 표시를 못하고 오히려 더 친절하게 대하는 때가 종종 있다.
38. 힘들게 사는 다른 사람의 딱한 사정을 위로해 주다보면 어느덧 내 마음의 아픔까지도 덜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39. 서글픈 마음이 들면 사람들을 피해 혼자 지내게 된다.
40. 성(性)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41. "나쁜 짓은 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것이 내 삶의 철학이다.
42. 내 생각에는 사람들은 선하거나 악하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43. 상사가 괴롭히면 직접 따지기보다는 일부러 일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실수를 저질러 그를 곤경에 빠뜨려 버릴 것이다.
44.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 같다.
45.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주려고 애쓰는 편이다.
46.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누군가가 일부러 나를 골탕먹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47. 나는 매우 힘들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운 웃음거리를 찾아내서 기분전환을 잘 하는 편이다.
48. 화를 내도 시원찮을 사람에게조차도 매우 친절하게 대하는 때가 종종 있다.
49. 어떤 사람이 나쁘다면 그는 전적으로 나쁜 것이지, 그 사람에게서 조금이라도 괜찮은 측면을 발견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50. 마음에 들지도 않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치켜세우거나 칭찬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51.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게 분명하다.
52. 몸이 안 좋아 병원에 가더라도 무슨 이상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의사는 하나도 없을 것 같다.
53. 곰곰이 생각해보면 화가 날 만도 한데 실제로는 화난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
54. 다른 사람에게 내 입장을 강하게 내세운 다음에는 내가 너무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곧 사과를 하게 된다.
55. 내가 겪는 문제들 중 상당 부분은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탓이다.
56. 우울하거나 불안한 기분이 들 때 뭔가를 먹게 되면 기분이 나아진다.
57. 주위의 그 누구도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 58. 나는 주위로부터 내 말에서 감정이 느껴지지 않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 59. 큰 감동을 준다는 TV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별다른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
- 60. 나에겐 일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자꾸 하게 되는 습관이나 의식치레 같은 게 있다.
- 61. 긴장하게 되면 자꾸 물을 마시게 된다.
- 62. 주위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아무리 호소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다.
- 63. 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
- 64. 신경 쓰이는 일이 있을 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면 기분이 한결 나아진다.
- 65. 내가 뭔가 잘못 하더라도 그건 나 혼자 책임이 아니다.
(이 문항은 문항-방어기제간 상관성이 낮아 K-DSQ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66. 뭔가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지워버리기 위해 다른 일에 몰두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